

국민과 함께 90년... 전국체전 막 올랐다



'마음을 하나로,
대전을 세계로'
체육인들의 한마
당 큰잔치 제90회
전국체육대회가 20
일 대전에서 개막

해 열전 7일에 돌입했다. 41개 정식 종목과 3개 시범 종목이 열리는 이번 대회는 전국 16개 시·도에서 2만4천541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고향의 명예를 걸고 뜨거운 메달 경쟁을 펼친다.

이번 전국체전에서 광주는 카누·수중·세파타크로 3개 종목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1천256명(선수 928명·임원328명)이 출전하고, 전남은 전종목에 1천685명(선수 1천244명·임원 441명)의 선수단이 파견된다.

또한 광주는 이번 대회에서 단체종목 선전을 기대하며 종합 13위를 목표로 충북과 순위다툼이 예상된다. 전남은 일부 기록종목과 단체종목에서 기대 이상의 성적을 거둔다면 한자릿 수 진입도 가능할 것으로 은근히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대구·강원의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정구·검도·체조·양궁·레슬링·태권도·우수·종복 등에서 상위입상이 예상되고, 축구·야구·배구·하키·소프트볼의 성적에 따라 목표달성을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다.

전남은 궁도·양궁·사격·승마·볼링 등 기록종목과 전력이 대등한 시·도와 초반 대진하는 드럼족이 큰 일부 단체종목인 축구·정구·수구·야구·배구·검도·배드민턴 등이 비교적 안정된 전력을 바탕으로 선전



제90회 전국체육대회를 하루 앞둔 19일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개막식 리허설에서 선수단 입장이 진행되고 있다.

/대전=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광주·전남 등 16개 시도 선수단 대전서 열전 7일 돌입

장미란·곽예지 등 총집결 고향 명예 걸고 뜨거운 경쟁

이 기대되고 있다.

이번 대회에도 국가대표 선수들이 출전 수준 높은 경기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고양시청 소속으로 출전하는 장미란은 11월 고양에서 열리는 세계선수권 대회를 앞두고 세계선수권 대회를 세워 컨디션을 한껏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정했다.

장미란은 전국체전 첫날인 20일 여자일반부 최종종관에 출전해 인상과 용상, 합계 3개 부문에서 금메달을 예약했다.

세계최강 여자양궁에서는 고교생 신궁곽예지(대전체고)가 지난달 말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2009 FITA(국제양궁연맹) 양궁월드컵 파이널대회 리커브에서 우승한 여세를 몰아 2008년 베이징올림픽 메달리스트들이 선배들과 대결을 벌인다.

‘국민 마리토너’ 이봉주는 고향인 충남의 대표로 출전해 은퇴 레이스를 펼친다.

충남 천안에서 태어난 이봉주는 21일 한밭종합운동장을 출발, 통산 41번째 완주에 도전한다. 1990년 전국체전에서 생애 처음 풀코스를 뛰고 2위를 차지했던 이봉주는 1993년까지 매년 출전해 금메달 2개를 따냈다.

이봉주는 레이스를 끝낸 뒤에는 국민과 함께 했던 마라톤 영웅을 위한 은퇴식도 마련된다.

/서승원기자 swseo@

광주·전남 사령탑 출사표

“U대회 개최도시 위상·자긍심 높일 터”

전학철 市체육회 사무처장



지난해 보다 높은 3
만2천점 이상을 득
점해 종합 13위를
목표로 하고 있다.”
고 밝혔다.

전 처장은 “올해
가 2015년 하계유니

버시아드대회를 유치한 광주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헤이다”면서 “이번 대회에서
국제대회 유치 도시로서의 자긍심을 높
이고 돌아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이
어서 전 처장은 “이번 체전에서 광주선수단
이 선전을 펼칠 수 있도록 시민들도 뜨거
운 응원을 보내달라”고 당부했다.

“컨디션 최고... 중위권 수성 문제 없어”

서정복 道체육회 사무처장

“전년도 개최지로서의 모범적인 자세
와 함께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정성당한
승부를 펼쳐 중위권 수성을 목표로 최선
을 다하겠습니다. 이율러 고장의 명예와
자긍심도 지켜내겠습니다.”

서정복 전남도체육회 사무처장이 전국
체전 출전 각오를 이같이 밝혔다. 서 처장
은 또 “전남선수단은 올해 대회 준비와
차별화 되게 훈련비를 조기집행하여 선
수들의 사기진작은 물론 기초체력 보강
과 강인한 정신력을 키워왔다”면서 “이

번 대회에서 반드시
한자릿 수 등위를 유
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선
수단은 전남도 역점
사업인 2010년 F1코
리아그랑프리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
람회 등을 흥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 처장은 “F1과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미래 한국의 중심
이 될 자존심을 지켜내도록 도민의 성
원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



번 대회에서 반드시
한자릿 수 등위를 유
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대회에서 선
수단은 전남도 역점
사업인 2010년 F1코
리아그랑프리대회와 2012년 여수세계박
람회 등을 흥보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서 처장은 “F1과 박람회의
성공 개최를 발판 삼아 미래 한국의 중심
이 될 자존심을 지켜내도록 도민의 성
원에 반드시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
다”고 다짐했다.

/서승원기자 swseo@



광주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축제’ 성료

제21회 광주시장기 생활체육한마음축제가 18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광주시 생활체육회(회장 김창준) 주최로
열린 이번 축제는 5천여명의 생활체육 동호
인들이 참가한 가운데 축구·케이트볼·전통
무용 등 19개 종목에 걸쳐 5개구 대항전으로
이틀간 열전을 펼쳤다.(사진)

이번 축제에서 광산구는 승부차기·이어달
리기·배구에서 1위를 차지했으며 동구는 줄
넘기와 겸도, 서구는 줄다리기·축구·골프,
북구는 테니스·합기도·태권도에서 각각 우

승 트로피를 안았다. 또한 한마음공글리기·
이어달리기·승부차기·줄다리기 등 화합경기
를 통해 동호인 간 친선과 우의를 다졌다.

김창준 회장은 “매년 광주 지역 생활체육
동호인이 모두 함께 할 수 있는 생활체육 축
제에 많은 시민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며 “오는 11월 6일에 있는 광주 지역 생활체육
대학생 생활체육한마당 축제도 성황리에 열
릴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사진=위지랑기자 jrwi@kwangju.co.kr

‘태권소녀’ 임수정 금빛 발차기

세계선수권 라이트급 우승

2008 베이징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임수정
(23·수원시청)이 2009 세계태권도선수권대
회에서 ‘금빛 발차기’를 날렸다.

임수정은 19일(이하 한국시간) 덴마크 코
펜하겐 베라호프 슈퍼아레나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날 여자 라이트급(-62kg) 결승에서
중국의 정휘를 맞아 난타전 끝에 10-8로 승
리,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임수정은 이로써 올림픽과 세계선수권대
회 타이틀을 한몸에 지녔다.

2002년 아시안게임과 2007년 하계유니
언뉴스

버시아드도 우승한 임수정은 거의 모든 국
제 대회를 휩쓸었다.

남자 라이트급(-71kg) 김준태(23·성남시
청)도 금메달을 보탰다.

준결승에서 미국 태권도 명가 ‘로페스 가
문’의 셋째 아들 마크를 상대한 김준태는 작
년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 로페스의 노련미
에 0-4로 끌려가며 양발로 얼굴과 몸통 공격을
공격을 성공해 7-5로 역전승했다.

이어 결승에서는 포트빈 맥심(캐나다)을
맞아 1라운드 종반 둘러싸기와 2라운드 끝
나기 직전 기습적인 원발 공격을 적중시키고
3라운드에서 맥심의 반격을 효과적으로
차단해 5-2로 승리했다.

오씨는 무전에서 “루트 파악의 어려움과
대원들의 안전을 고려해 이번 안나푸르나
등반을 접고 베이스캠프로 귀환하겠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20일(화) ▲2009 프로야구 코리안시리즈 4차전(A 야 : SK)(17:55·SBS)

20일(화)

▲09/10 프로농구<모비스 : KT>(18:
50·SBS스포츠) <동부 : LG>(18: 50·MBC
ESPN)

“14회 완등 내년 재도전”

오은선 안나푸르나 등정 포기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
말리아 8천m 14개와 원동의 마지막 관문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세계 최초의 여성산악인이 되
겠다는 오씨의 포부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19일 후원업체인 블랙야크에 따르면 오씨
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를 전부터 머물고 있
던 전진캠프(해발 5천100m)에서 무전을 통
해 베이스캠프 철수 의사를 밝혔다.

“14회 완등 내년 재도전”

오은선 안나푸르나 등정 포기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
말리아 8천m 14개와 원동의 마지막 관문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세계 최초의 여성산악인이 되
겠다는 오씨의 포부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19일 후원업체인 블랙야크에 따르면 오씨
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를 전부터 머물고 있
던 전진캠프(해발 5천100m)에서 무전을 통
해 베이스캠프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
말리아 8천m 14개와 원동의 마지막 관문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세계 최초의 여성산악인이 되
겠다는 오씨의 포부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19일 후원업체인 블랙야크에 따르면 오씨
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를 전부터 머물고 있
던 전진캠프(해발 5천100m)에서 무전을 통
해 베이스캠프 철수 의사를 밝혔다.

20일(화) ▲2009 프로야구 코리안시리즈 4차전(A 야 : SK)(17:55·SBS)

20일(화)

▲09/10 프로농구<모비스 : KT>(18:
50·SBS스포츠) <동부 : LG>(18: 50·MBC
ESPN)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
말리아 8천m 14개와 원동의 마지막 관문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세계 최초의 여성산악인이 되
겠다는 오씨의 포부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19일 후원업체인 블랙야크에 따르면 오씨
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를 전부터 머물고 있
던 전진캠프(해발 5천100m)에서 무전을 통
해 베이스캠프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
말리아 8천m 14개와 원동의 마지막 관문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세계 최초의 여성산악인이 되
겠다는 오씨의 포부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19일 후원업체인 블랙야크에 따르면 오씨
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를 전부터 머물고 있
던 전진캠프(해발 5천100m)에서 무전을 통
해 베이스캠프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
말리아 8천m 14개와 원동의 마지막 관문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세계 최초의 여성산악인이 되
겠다는 오씨의 포부는 내년 초로 미뤄졌다.

19일 후원업체인 블랙야크에 따르면 오씨
는 이날 오전 11시께 이를 전부터 머물고 있
던 전진캠프(해발 5천100m)에서 무전을 통
해 베이스캠프 철수 의사를 밝혔다.

여성산악인 오은선(43·블랙야크)씨가 히
말리아 8천m 14개와 원동의 마지막 관문인
안나푸르나(8천91m) 등정을 결국 포기했다.

이에 따라 올해 내 8천m 14개 봉우리를
모두 오르는 세계 최초의